

해외출장복명서

기 간: 2018. 5. 15(화) ~ 5. 17(목)

출장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김동주 원장

출장자: 이현주 센터장

안예현 책임연구원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I. 출장개요

1. 출 장 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2. 출장기간: 2018. 5. 15 (화) ~ 5. 17 (목)
3.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비고
국토연구원	원장	김동주	제8차 한·러 극동포럼 세션 1 좌장
국토연구원	센터장	이현주	극동포럼 발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안예현	극동포럼 토론

4. 출장목적

- ☐ 정부의 ‘신북방정책 9 브릿지’ 제안의 분야별 구체화 및 한러정상회담 후속 어젠다 발굴
- ☐ 극동러시아 지역의 현지 정부기관, 민간기업 관계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 ☐ 극동러시아 지역개발을 위한 전략 및 수산·어선건조, 북극항로·물류,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 등 논의
- ☐ 한-극동러 지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모색 및 기업 간 교류 협력 확대, 협력 가능 분야 발굴을 통한 우리 기업의 극동 진출 지원

II. 출장일정

날짜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장소	주요 수행업무	관계자
5.15 (화)	인천	러시아 블라디 보스톡	현대호텔	(10:10) 인천 출발 (13:50)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도착 (18:30-20:00) KMI 원장 주최 내빈 만찬	- 한측 : 김동주 국토연구 원장, 양창호 한국해 양수산개발원 원장, 이 석배 총영사, 김성진 북 방경제협력위원회 협력 총괄팀장, 성원용 인천대 학교 교수, 김학기 산업 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준 국민대학교 교수, 강태호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등 30여명
5.16 (수)		블라디 보스톡	현대호텔	(08:30-17:30) 한러 극동포럼 참석	- 러측 : 타라센코 연해주 지사, 롤리크 연해주 의 회 의장, 그레벤니코프 극동개발기금 극동대표, 페추르치크 극동개발공 사 부사장, 페긴 극동개 발공사 사장, 자부즈나 극 동투자수출지원청 분석관, 나스타프웨프 연해주 수산 국장, 오가이 네벨스코이 국립해양대 총장, 이리나 팔레에바 사할린주 경제 개발부 차관 등 30여명
5.17 (목)	러시아 블라디 보스톡	인천		(15:10) 블라디보스토크 출발 (16:50) 인천 도착	

III. 수행사항

1) 개요

- ☐ 행사명: 제 8차 한·러 극동포럼
- ☐ 일시 및 장소: 2018. 5. 16(수) 08:30~17:30, 블라디보스톡 현대호텔
- ☐ 주최/주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 ☐ 참석자
 - 한국측 :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김동주 국토연구원 원장, 이석배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총영사, 김성진 북방위 협력총괄팀장, 성원용 인천대학교수, 이현주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안예현 책임연구원, 황진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장홍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 김학기 산업연구원 박사, 김효선 북방위 위원 등
 - 러시아측 : 타라센코 연해주지사, 그레벤니코프 극동개발기금 극동대표, 페투호트 극동투자수출지원청장, 티호노프 극동개발공사 사장, 자부즈나 극동투자수출지원청 분석관, 나스타프웨프 연해주 수산국장, 무르지치 극동개발기금 선임국장, 레루힌 극동수산물거래소 사장, 오가이 세르게이 네벨스코이 국립해양대 총장, 페긴 캅차카개발공사 사장, 프루드니코프 극동철도 수석엔지니어, 할로샤 FEMRI-보스토치니 부사장, 예로힌 언스트&영 극동대표, 사비츠키 극동해양원수시추社 수석 엔지니어 등

2) 주요 내용

1. 개회식 (09:10~10:00)

- ☐ 개회사(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 극동러시아에서 한-러 양국의 협력은 지난해 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됨
 - 한국 정부는 극동러에서 양국 협력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 조선·항만·북극항로·가스·철도·전력·농업·수산업, 그리고 일자리 등 9개 분야의 협력다리를 건설하자는 ‘9브릿지’를 제안한 바 있음
 -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북방경제협력 위원회를 출범시켰음

- 러시아 정부도 블라디보스톡자유항, 선도개발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러한기업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양국 정상간 합의사항 이행에 적극 노력중임
- 최근 희망찬 격변이 우리 주위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지난 4월 27일 북한의 지도자가 남한의 영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또한 6월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근본적인 전환점이 될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음
- 이러한 희망찬 변화의 흐름 속에서, 오늘 열리는 한-러 극동포럼은 많은 전문가와 기업인들을 모시고, 극동러 개발, 수산/어선건조, 북극항로/물류, 에너지 등 총 4개 분야에서 한-러 양국의 희망과 고민, 그리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게 될 예정
- 직금의 변화를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여 한-러 협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이를 한-러 발전과 남북·중-러 북방지역 각국의 경제협력과 호혜증진에 선도적으로 기여해야 할 것임

□ 축사(타라센코 연해주지사)

- 한국은 연해주의 전략적이고 중요한 파트너 국가임을 고려할 때 이번 극동포럼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전년대비 한-러 양국간 무역량은 약 24% 증가하였으며, 11월 기준 3,300만 달러 기록하는 등 무역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
- 특히 수산물 및 기계, 장비, 전자기기 등 기계류의 유입이 무역량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연해주지역 내 한국자본 투입 기업은 약 50개 수준으로 농업, 숙박업, 기계, 전자 등 다양한 산업이 발달해있음
- 한국기업을 위한 투자센터 개설로 한국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과 경기도와 MOU를 통해 입주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 중
- 최근 연해주 지역과 한국 국민들의 관광 교류가 활성화 되고 있으며, 이는 극동지역의 개발 및 한-러 협력에 가장 큰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각적 협력 발전에 기여
- 연해주지역 내 한국기업이 보유한 기술(선박건조 기술 등)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연해주가 보유한 다양한 자원 및 지리적 이점 등 여러 면에서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

□ 축사(롤리크 연해주의회 의장)

- 한-러 양국간 밀접한 관계는 동방경제 포럼을 포함해 끊임없이 우호적인 관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양국 정상 간 합의가 연해주 지역의 개발 및 성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음

- 한국 기업인들은 연해주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성공적인 관계를 위해 양국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
- 최근 한반도의 평화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러 양국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며, 기업, 정부 등 각국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환영사(이석배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총영사)

- 한-러 정상회담시 협력확대를 위한 나인 브릿지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양측 기업들의 다양한 참여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논의 중
-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유엔안보리 제제 등의 해결과제가 남아 있음에도 한-러가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이번 포럼에서 나인 브릿지에서 논의될 다양한 산업 및 협력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

□ 기조연설 1: 극동 투자 잠재력과 개발 방향(무르지치 극동개발기금 선임국장)

-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내 러시아의 중요한 협력 국가 중의 하나로 최근 들어 그 협력 관계가 더욱 두터워지고 있음
- 한국 투자자들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계획에 적극 참여하는 등(한국 자본 투입 10개 프로젝트) 다양한 산업에 투입되고 있으며,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투자자들의 참여가 더욱 늘어나는 추세임
- 블라디보스톡이 중심이 되는 극동지역은 다양한 천연자원(금, 석탄, 금광석 등)과 아시아 주요 국가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교역의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
- 극동지역 개발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과제로 러시아 정부는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 8월부터 블라디 자유항 입주기업에 한하여 무료 전자비자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관광객 증가 및 관광산업 활성화 기대)
- 18개 TOR 자유항 제도는 극동지역 5개 구역으로 확대될 예정
- 극동개발기금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가 출연한 기관으로 공동투자플랫폼을 구축하여 자원의 투입을 증대시키고 프로젝트 참여 외국인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현재 14개의 투자프로젝트 진행 중, 1850억 루블(약), 직접투자, 부분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원 중
- 극동개발기금과 한국의 수출입은행이 협약을 통해 2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 중
-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한국측 파트너를 모집하고 있으며 향후 1,000루블 규모의 재원 마련 예상되며, 하이테크, 농업, 양식업, 관광업 등이 유망분야로 손꼽히고 있음

□ 기조연설 2: 한-러 경제협력 비전과 추진전략(김성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협력총괄팀장)

-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이후 열리는 제8차 한-러 극동포럼은 향후 양국의 협력을 위해 매우 의미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과거 한반도의 정세가 한-러 협력의 주요 걸림돌이 되었지만 최근 남북관계 개선으로 협력의 지속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한-러 정부는 유럽 및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
 - 한-러 협력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를 경유하는 복합철도 네트워크 조성 가능하며, 러시아가 추진 중인 극동지역 클러스터 조성에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과거 한-러 간 경제협력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미미하였으며, 향후 양국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이 요구되며 여러 분야의 인적교류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됨



▲ 개회사

▲ 주요贵宾 기념촬영

▲ 행사 사진

▲ 현지 언론보도

2. 제1세션 : [극동개발] 극동개발의 새로운 전개와 대응방안 (10:00-11:30)

※ 좌장: 김동주 국토연구원 원장

가. 주제발표

(1) TOR 및 FPV 해외투자 사례와 시사점(페추르치크 극동개발공사 부사장)

-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3000 km 안에 여러 국가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향후 북한까지 포함된다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매우 높게 평가할 수 있음
- 러시아 정부는 내수시장을 위해 극동지역 인구증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며 인력자원담당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 중임. 극동개발을 위해 전담기관인 극동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으로 극동지역의 전반적인 인프라, 투자, 개발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
 - 2018년 연말까지 하바롭스크, 캄차트카주 등에서는 전기, 수도, 등 기본적인 산업단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예정이며 극동개발공사의 책임아래 추진될 예정

- 선도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받으며 최초 5년까지 법인세, 재산세 등을 부여하지 않으며 러시아의 타 지역의 경우 현재 30%를 부과하고 있는 등 선도개발구역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중이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될 전망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내 입주기업은 약 650개로 이 중 한국기업은 5개로 생활용품, 화학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입주해있음
 - 한국 5개, 중국 20개, 일본 3개 등 주요 국가들의 입주실적이 여전히 미비한 실정
 - 나테진스카야, 캄차트카 자유구역에 주로 진출해 있으며, 한국기업들은 한국과 밀접한 지역의 선도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선도개발구역 입주기업은 블라디자유항 입주기업 보다 더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입주 절차 등 관련 행정이 까다롭고 복잡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넓은 대륙으로 인해 입주기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띄지는 않지만 향후 극동지역의 개발 활성화 및 입주기업의 증가로 연해주 및 극동지역의 성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
 - 선도개발구역 내 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이 단지 1년 만에 갖춰진 것을 미루어 볼 때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엿볼 수 있으며, 한국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는 바임

(2) 극동러시아 개발 전망과 과제(성원용 인천대학교 교수)

- 극동지역을 둘러싼 여러 국가들이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긴밀한 경제협력이 일어날 수 있는 잠재력 및 에너지가 매우 풍부함
 -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가능성을 두고 여러 국가들의 치열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는 과거 유라시아 연결을 추진 중이며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경제 성장의 잠재력으로 적극 활용 중, TSR의 주요 국가인 몽골 또한 중국, 러시아와 연계한 중-몽-러 운송로 확보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국면이 진행되던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을 토대로 여러 가지 변화 조짐이 발생하고 있으며, 더 큰 가능성 및 다양성이 극동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음
- 러시아 또한 다양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의 신동방정책 추진은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변화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

- 문재인 정부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출범을 통해 중국, 러시아 등 북방시장 공략을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남북리의 실질적인 협력이야말로 북방시장의 핵심이라고 판단됨
- 특히 나진-하산 철도 구축사업 향후 시베리아 횡단철도와의 연결성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남아 있는 실정



- 향후 우리나라는 극동지역의 축이 어느 지역으로 변화할 것인지 예상해 볼 필요가 있으며 한국과 러시아가 함께 고려해야하는 핵심 과제
-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보 차원에서 극동지역 국가의 적극적인 협력과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제한된 자원임에도 선도개발구역은 끊임없이 늘어나는 추세로 극동개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며 극동지역의 강점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집중적인 성장 방안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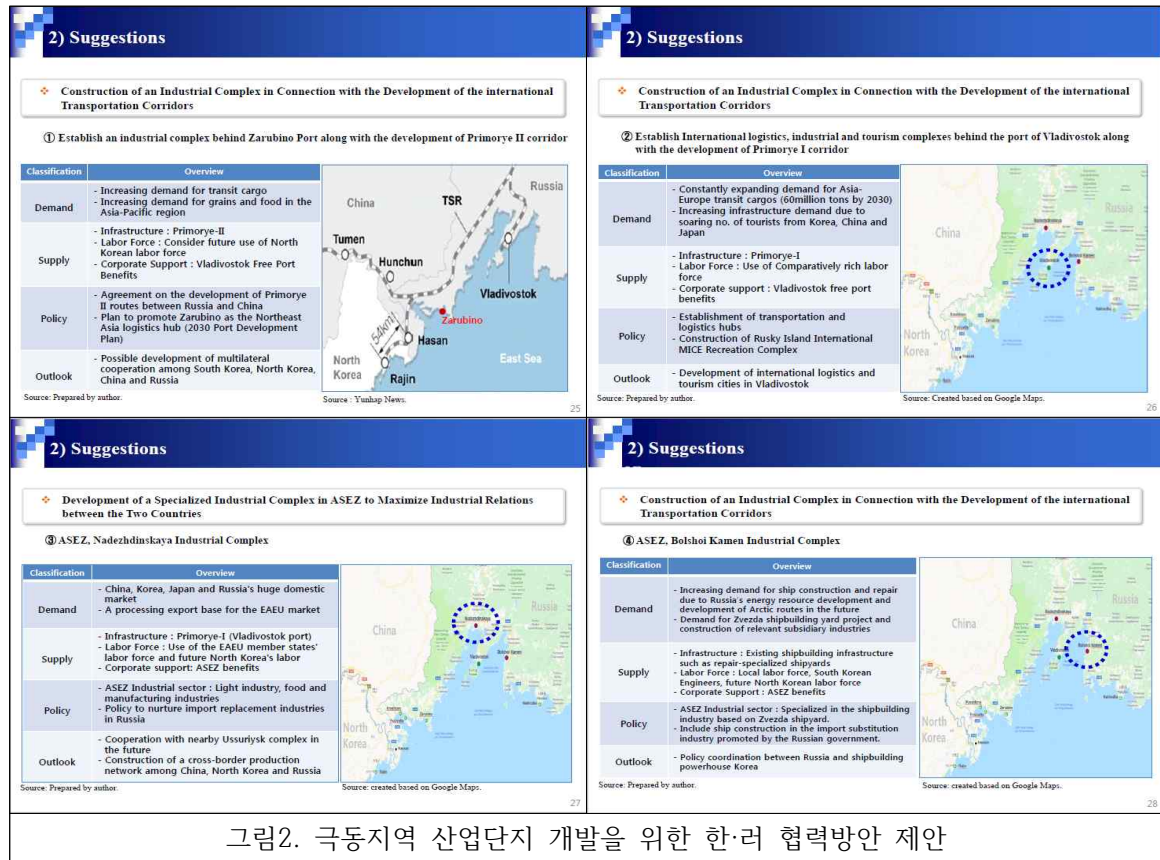
(3) 극동러 추진성과와 향후계획(폐진 캄차카 개발공사 사장)

- 극동지역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농업, 건설업 등 극동지역과 러시아 전체의 주요 산업 지표를 살펴보면 극동지역의 성장 추세가 두드러짐

- 특히 캄차카는 다양한 환경 조건, 대규모 내수시장 보유 등 여러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농업, 건설업 등 주요 산업의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어 외국기업들의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음
 - 캄차카 주에 입주를 원하는 한국기업은 엘지, 대림, CDS union 등이 있으며 극동지역 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음
- 최근 들어 캄차카의 흥미로운 자연환경으로 인해 관광산업이 주목받고 있으며 연간 100만명 이상의 증가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현재 크루즈선 입항을 도입 계획이며, 또한 호텔, 숙박업 등에 적극 지원하여 극동지역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의 주요 관광지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
 - 또한 재생에너지 개발로 전력요금을 대폭 절감하였으며, 다양한 발전시설을 도입할 계획

(4) 극동지역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한·러 협력방안(이현주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극동지역 산업단지의 기회요인으로 4가지를 꼽을 수 있음
 - 1. 적정수준의 내수시장과 수출 증대
 - 2. 한-러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풍부한 경험 보유(우수리스크 산업단지 조성)
 - 3. 프리모리예 1, 프리모리예 2 등 극동지역의 주요 운송로가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장점이 매우 큼
 - 4.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로 극동지역의 사업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극동지역 산업단지의 위험요인으로서는 낮은 인구밀도, 낙후된 수송, 교통 인프라 등이 있으며 기회요인과 도전요인을 기반으로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프리모리예 1,2 국제운송노선과 연계한 배후산업단지 조성 및 프리모리예 2, 자루비노항과 연계한 산업단지 개발 등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조성 및 점진적인 개발 추진을 위해 이행체계의 명확화, 극동개발 협력위원회(가칭) 설립으로 극동개발에 적극 추진해야 함
 - 러시아와 한국 모두 AIIB의 가입국으로 자원조달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각각의 선도개발구역 및 비즈니스 사업 특성의 체계적인 정보 공유 및 다각화, 고부가가치산업을 위해 R&D 유치 등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



나. 토론

○ 안예현(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극동지역 개발은 입주지원, 세금혜택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지역개발 관점에서 살펴보면 북한과 극동지역은 사업, 환경, 경제 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극동지역과 북한지역의 개발에 대한 각각 다른 방법의 접근이 필요함

○ 황진희(KMI 본부장)

- 과거 기대와는 달리 극동지역의 가시적인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양국의 정부가 더욱 극동지역 개발 및 성장을 위해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
- 러시아 극동개발 계획과 한국의 신동방정책의 협력방안을 살펴보면 해운물류기업의 협력, 국내 항만물류기업들이 러시아 항만개발에 적극적인 참여, 캄차카의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러시아-한국 크루즈 합작선사 출범, 규제완화 등이 요구됨
- 인프라 확대뿐만 아니라 관광활성화 및 금융제제 문제해결이 필요
- 또한 극동지역 부족한 인프라는 해상운송의 적극적인 활용의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해상운송로를 활용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스코릭(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 지원협회장)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제도가 입주기업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며, 면밀히 파악하여 입주기업의 증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즉, 기업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자자의 날 등 기업 투자자를 위한 관심 및 행사유치 등이 적극 필요
- 실제 기업의 투자 결정이 완료되었다더라도 사업으로 이어지기에는 여러 가지 이행절차가 필요한 바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자오스트롭프스키(러시아 과학 아카데미(RAS) 극동분원 선임연구원)

- 러시아 경제의 주요 키워드는 신동방정책으로 현재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프로젝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이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만의 서비스 다양화 및 입주기업을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 및 지원방안을 모색해야함



▲ 세션1 좌장(국토연구원 김동주 원장)

▲ 세션1 한국측 발표자(국토연구원 이현주 센터장)

▲ 세션1 토론자(국토연구원 안예현 책임연구원)

▲ 세션1 토론모습

3. 제2세션 : [수산·어선건조] 극동지역 수산 현대화와 협력방안 (11:30-13:00)

※ 좌장: 레루힌 극동수산물거래소 사장

가. 주제발표

(1) 극동지역 수산·양식 산업 투자 기회(자부즈나 극동투자수출지원청 분석관)

- 극동개발기금은 양식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양식업을 위한 투자 지원 및 투자 방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 양식업의 온라인 투자 경매와 관련한 러시아 정부의 승인이 완료된 상태이며 향후 온라인을 통한 수산물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복잡하고 다양한 절차들이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됨
- － 올해 6월 본격적인 서비스가 구현될 예정이며, 투명한 절차를 통해 양식업을 위한 부지를 선정하고 투자를 이행할 수 있음. 과거 1년이 소요되던 절차가 약 80일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

(2) 수산물류가공단지 중심의 한러 수산협력 과제(장흥석 KMI 수산정책연구실장)

- 극동지역 수산물류가공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기회가 마련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나지모바 곳 어항 기반의 수산가공물류단지가 매우 가능성이 높음
- － 한국과 러시아 양측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어항 운영, 수산물류센터, 컨테이너 보세창고, 수산가공업 등 4개 분야를 단계적으로 추진
- － 수산 및 수산가공업뿐만 아니라 항만, 물류기업이 참여하여 대규모 고용효과를 창출가능 (약 2,500명 예상)
- 나지모바 어항기반 수산가공물류단지 사업을 한러 관련기업들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Biz 모델로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나 여러 해결과제가 산재해 있음
- － 비중이 낮은 산업으로 관련 컨설턴트 전문가 집단이 부재한 문제가 있으며 러시아 정부가 보증하는 컨설팅 제공이 요구됨
- － 러시아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경우 지역의 기업에 의해 다소 좌우되는 경향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의견 수렴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나지모바 어항기반 수산가공물류단지 프로젝트는 한러 수산투자협력의 이정표가 될 수 있으며, 향후 한러 수산투자협력의 규모를 제고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양국 정부의 협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

(3) 어선 건조·수리 분야 한국의 참여 방안(김학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러시아는 어선의 노후화 부족 등의 이유로 사고와 기술적인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 타개를 위해서는 어선의 신조가 필요함에도 러시아 선주들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
 - － 이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수산업 육성을 위한 어선 건조 확대 정책 추진하고 있으며, 어선 건조와 수산가공 분야에 대해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조업권을 활용하는 정책 진행
 - － 극동지역의 각 지방정부도 어선건조 및 수리조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 러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약 360척의 어선 건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100~120억 달러로 추정됨
 - － 극동개발계획은 어선 건조 및 수리조선 발전에도 많은 장점이 있으며,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추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 차기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계획은 더욱 개방적이고 인센티브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한국 조선업의 경기 침체로 중소 조선소 및 선박수리 기업의 러시아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며, 선박 수리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 또한 높게 평가되고 있음
 - － 수산업 가공, 어선건조, 조선산업 분야에서 한-러 양국 간 상호협력의 필요성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는 실정이며, 한국의 중소 조선 및 기자재업체는 러시아 시장 진출 등으로 방법 모색 중
 - － 러시아의 조선산업 육성정책과 수산업 육성정책 등으로 러시아의 어선건조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러시아의 수산기업들도 한국과 협력에 의한 어선 건조 및 수산가공산업 확대에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한-러 양국 정부 및 관련 기관, 지방자치 등 다양한 기관의 협력 기관 설립 및 공동사업 추진, (가칭) 한-러 어선 건조 및 수산 가공 협력 센터 추진을 통해 지속적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함

(4) 극동지역 수산자원 거래 복합단지 조성(레루힌 극동수산거래소 사장)

- 수산물의 경우 경매소나 경매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극동지역 내 경매시스템을 구축하여 러시아 및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함
 - － 이를 위해 러시아 정부 또한 수산물복합가공단지 및 경매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음

-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은 러시아농업담당 은행에서 전폭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 5월부터 전자경매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 5월 첫 전자경매 후 외국으로 수출된 사례가 있음
 - 이러한 프로세스 개발 배경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2017년 동방경제포럼에서 실시간으로 수산물의 전자경매 과정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한국의 정부도 많은 관심을 보였음
- 2018년 3월에는 한국의 기업과 직접적인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연해주 수산경매복합단지 건설은 극동지역의 핵심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

나. 토론

- 권기현(한국통산 부장)
 - 전 세계적으로 모든 어종이 나날이 감소하는 실정이나, 러시아는 매년 어획량 및 수산물 생산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
 - 러시아 극동지역은 고등어 어획량이 약 200만 톤으로 추정되며 고등어 및 정어리 생산량 확보를 목표로 어선건조를 추진 중임
 - 고등어, 정어리 어획량 증대를 위해 선망조업기술 방식이 적합하나 현실적으로 해결과제가 산재해 있음
- 성기석(CJ대한통운 부장)
 - 북한의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 가공이 이루어진다면 남북러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극동지역 내 연간 20만 톤의 수산물을 소비하는 반면 중국 동북 3성 내 약200만 톤을 소비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별 소비량의 불균형에 주목해보면 수산물의 운송경로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 또한 수산물가공공장과 물류부문의 시너지가 발휘된다면 수산물가공단지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엄선희(KMI 부연구위원)
 - 현재 러시아에서는 어선의 부족 및 노후화가 심한 실정, 한국 또한 마찬가지로 어선 분야 및 중소조선업계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한국 정부에서는 어선의 현대화 사업과 중소조선업의 성장을 함께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 중임

- 어선 건조는 향후 30,40년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당장 시급하게 해결하기 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선건조, 이에 따른 영향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어선노후화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단순히 어선건조, 수리업 확대에 대한 투자 확대만이 해결책이 아니라 한,러 양국이 면밀히 상황을 공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인 어선 노후화를 해결하는 방안이 양국간 상호이익이 되는 것이라 사료됨

○ 갈리트순(감차카 어업부 장관)

- 캄차카주는 한국과 수산분야 협력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노후화된 대형 어선들의 현대화를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 중에 있음
- 주로 연어의 어획 및 관련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최근 한국기업들의 투자가 축소되고 사업이 더디게 진행 되는 등 여러 가지 해결과제가 남아있어 한러 양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함

4. 제3세션 : [북극항로·물류] 북극항로와 북합운송의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14:00-15:30)

※ 좌장 : 양창호 KMI 원장

가. 주제발표

(1) 극동러 지역에서의 북극항로 활성화 성과와 향후 과제(오가이 세르게이 네벨스코이 국립해양대 총장)

- NSR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루트로 2013년 1월 최초로 운항에 관한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최근들어 NS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과거 소련시절 NSR은 매우 중요한 운송루트로 북극지역에 대한 운항을 진행해왔으며, 1970년 초반부터 NSR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음
 - 결과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에 입각하여 NSR을 개방하는 쪽으로 의견이 치우침
- 약 2,000teu 선박을 북극항로를 통해 운항하기 위해서는 쇄빙선을 이용해야 하는데 쇄빙선의 이용요금 또한 북극항로 운항의 중요한 요소이며, 쇄빙선의 가격 정책은 운항선박의 톤 수 및 경유지 등에 따라서 결정됨
 - 러시아 정부는 쇄빙선 제공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 8월에는 노르웨이에서 쇄빙선 없이 북극항로를 통과한 사례가 있었음

- 현재까지 쇄빙선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러시아 정부는 원자력을 이용한 쇄빙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2019년 말 최초로 시범운행을 앞두고 있음
-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
 - 극지에서 적응하고 활동할 수 있는 인력양성센터를 건립하여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한 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있으며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 및 개발 중
 - 또한 영하 기온, 극한 환경에도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인력 양성 집중을 통해 관련 기술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2) NSR 연계 비즈니스 모델(KMI 조지성 박사)

- 북극 빙하면적의 감소에 따른 북극항로의 등장하였으며, 북극항로의 이점 및 활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됨.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기존 항로 대비 NSR 이용시 부산-로테르담 노선의 경우 최대 10일 감소
 - 2013년 기준 북극항로 경유 화물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북극항로 규모의 경제 이용에 제약이 발생
 - 이는 곧 북극항로 이용자 수요의 감소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화물불균형,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존재
- NSR 상용화를 위해서는 내외부적 요인이 대한 심층적 분석과 함께 중단기적 방안 마련되어야 하며, 부분적인 북극항로 활성화 및 NSR 연계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함

(3) 극동러 TSR 활용 복합운송 활성화(프루드니코프 극동철도청 수석엔지니어)

- 극동러 TSR을 이용한 물동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개발 또한 점진적으로 진행
 - 프리모리에 1,2를 통과하는 컨 화물도 2016년 대비 2017년 약 2,2배 증가
 - 프리모리에 수송로 확보에 따라 국경을 통해 중국, 러시아를 통과하는 화물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내륙운송과 해상운송이 결합된 복합운송을 통해 운송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극동철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고객 만족이며 운송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고 수출입통관 절차 간소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으로 TSR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함

(4) TSR 개발 및 복합운송 활성화(할로사 FERMI-보스토치니 부장)

- 연해주 지역은 향후 경쟁을 통한 성장이 아니라 협력 및 통합의 화두로 나아가야 하며 통합된 인프라를 통해 개발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허브항만을 구축하여 NSR과 연계된 통합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양질의 물류서비스 제공을 통해 NSR의 성장이 기대됨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국제교통네트워크 사업 추진을 통해 기존 개발 프로젝트를 통합하고 다자간 협력, 러시아, 한국, 일본 등 주변국의 협력을 기반으로 블라디보스톡을 교통, 물류, 관광 등 복합서비스 제공 거점으로 개발시킬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허브가 구축된다면 도로, 항만 건설 등 여러 프로젝트가 파생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관광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물류네트워크 개발을 위해 관련 인프라의 통합 및 통합적인 차원의 지역개발 수립이 요구됨

(5) 극동러 복합운송에서의 화차 문제와 한러간 협력방안(한창윤, 세원마르스 대표)

- 극동지역의 산림자원은 잠재력이 매우 뛰어나며 산림자원 개발은 러시아의 경쟁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통해 집중적으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함
 - 특히, 산림자원의 가공을 통해 만들어지는 우드펠릿은 신재생에너지로도 사용가능하여 향후 그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현재는 싱가포르 및 베트남을 통해 수입되고 있으며, 향후 러시아 산 우드펠릿을 수입한다면 양국 간 상호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우드펠릿 150\$, 러시아 산 170\$ 이러한 비용차이를 물류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
- 한-러 간 우드펠릿 운송프로젝트 루트는 블라디항-부산, 블라디-동해 등의 노선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음
 - 나데진스카야에서 나진으로 철도운송 후 나진항에서 동해항으로 운송하는 방안도 고려(현재 남북관계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추진 가능성이 높음)

나. 토론

○ 전명수(블라디보스톡경제대학 객원교수)

- 새로운 해상교역로와 에너지 자원 대안으로서의 2가지 활용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며, 북극항로 개발의 경우 북극해의 지분이 가장 많은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북극항로 개발 사업에도 선두주자격임
- 향후 2025년까지 연간 북극항로 물동량을 8,000만 TEU(현재 약 700~800만 teu)까지 늘려나갈 계획
- 북극항로 개발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국은 러시아임이 자명하여, 러시아의 지분, 자원량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해야함.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미흡한 실정임
- 또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한-러 양국 정부간 협력기구 조성 등을 통해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에너지 개발과 연계한 협력, 쇄빙선 개발에 대한 협력 등을 통해 북극항로 개발에 대한 러시아의 중요한 협력 국가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 바클라노프(태평양 지리연구소 실장)

- NSR은 가장 열악하고 기후, 환경 등 여러 가지 악조건이 존재함에 따라 북극항로 이용 시 비용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언급되고 있음
- 러시아 북극지역에 주거 및 교통환경 개선 목적으로도 추진되고 있으며, 천연자원의 개발, 항만 개발 등 복합적인 관점에서 북극항로 개발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음
- 북극항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연안지역의 개발, 채굴사업, 항만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클러스터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유망지역으로는 추코츠키, 북 야쿠츠키 등이 클러스터 조성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음
- NSR 개발의 문제점으로는 연안항의 인프라 문제, 선박수리센터 부족 문제, 쇄빙선 확보, 쇄빙장비 및 기술 개발 부족, 운항의 안정성 문제

○ 베네프스키(중국 칭화대학교 교수)

- 북극항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은 시간과 비용을 쏙을 수 있으나, 환경문제 또한 문제제기 되고 있음
- 해빙의 증대, 지구온난화, 기온 상승 등이 대표적인 환경문제라 할 수 있으며 북극항로 개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임

- (해양) 선박의 기름 유출로 인한 오염, 해빙 증가로 인한 사고 위험성 증가, 북극항로 동식물의 생태계 변형
- (육지) 과도한 자외선 활용, 쇄빙선의 방사능 물질 처리 문제, 항만 인프라 건설에 따른 토양 오염 문제, 수질 오염 문제,
- NSR 개발은 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글로벌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됨
- 러시아 정부가 어획 쿼터배정을 투자와 연계시키겠다고 하는데 정책 관련, 러시아 자체 어선 건조 능력이 부족한 상황 감안 시 쿼터배정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

5. 제4세션 : [에너지] 극동지역 석유가스 협력 방안 (15:50-17:20)

※ 좌장 : 아브라모프 극동연방대 교수

가. 주제발표

(1) 극동지역 LNG 분야 투자 동향(예로힌 언스트&영 극동대표)

-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특징은 가격 헤징 및 에너지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지역 간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선진국 및 개도국들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LNG가 각광받고 있음
 - 현재 공급구조에서 전 세계 생산량의 21%를 카타르 뒤를 이어 호주와 말레이시아 순임
- 향후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건설 중인 공장의 50% 수준이 미국에서 건설 중인 것을 미루어 볼 때 그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됨
 - 러시아는 2035년까지 25%의 점유율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LNG 시장 구조를 살펴보면 수출국 카타르 1위 수입국 일본 1위, 한국 2위, 중국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저장탱크는 일본 1위, 한국 2위를 기록. 향후 파키스탄, 바레인 등이 주요 소비국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

(2) 한국의 천연가스 수급전망과 한·러 협력 가능성(김효선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에너지 전환의 전략은 지속가능한 전략과 맞물려 유기적인 계획 및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가스는 선진국, 개도국 구분 없이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중요한 에너지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 새로운 탄소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가는 카자흐스탄을 주목할 필요
- 가스라는 재화를 통해 한-러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국 에너지산업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함

(3) 사할린 석유가스 프로젝트의 동반자 DMNG(사비츠키 극동해양원 수시추진 수석 엔지니어)

- 러시아는 기존의 에너지 물류인프라를 활용하여 극동지역 내 석유화학산업 육성 및 대외 에너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연해주 석유화학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 중
- 인프라 구축 등 사업 추진에 약 11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방예산, 전략투자 자금 등으로 재원 조달 예정
- 동부석유화학 단지 프로젝트는 유사한 국내외 프로젝트 대비 원료 자체 조달, ESPO 송유관 및 해안 접근 용이성, 대규모 소비시장 등의 여러 장점을 보유하고 있음

나. 토론

○ 이상준(국민대 교수)

- 한-러 LNG 수입 물동량 증대에는 공감하나 LNG 시장이 점점 유연하게 변화되고 있는 시점이라 판단되며 러시아는 LNG 공급자 입장에서 가격안정성 추진이 주요 목표
- LNG 가격의 안정성 추진 및 경쟁력 추진이라는 한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대립된다고 볼 수 있으며, 에너지 시장, 항만, 물류를 결합한 통합형태의 공급 모델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강태호(한겨레평화연구소장)

-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는 과거부터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지난 해 동방경제포럼에도 많이 언급된 바 있음
- 러시아와의 협력이 북한과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대통령의 의견에 공감하며, 극동지역의 에너지 산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북중러의 협력 방향을 정화하게 기능할 수는 없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면 남북러의 협력이 우선시된다면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로프긴 니콜라이(‘가스프롬 극동 가스유통’社 연해주 지사장)

- 연해주 및 극동지역의 도시가스 사할린,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톡의 공급망을 통해 제공되고 있음
- 극동지역의 도시가스 사업은 연해주 소비자들의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특히 연해주 선도개발구역으로 중심으로 추진 중
- 에너지 링이라는 러시아 정부의 주도적인 에너지 사업 추진으로 러시아의 사업 추진은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됨

○ 팔라에바 이리나(사할린 경제개발부 차관)

- 2023년 한국과 장기공급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한국측은 신규 공급업체를 선정해야 하나 다수의 공급업체가 존재함에 따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음
- 장기공급 체결을 위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한-러 양국의 이익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당사 모든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참여하여 양측의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함
- 가스 공급시장의 경우 단기성 거래를 추진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약을 추진해 가격과 공급망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음

○ 판테레예프(연해주 부주지사 에너지 자문관)

- LNG시장과 관련하여 LNG선 건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며, 즈베즈다 조선소는 현대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LNG선 건조가 진행될 예정
- LNG선 확보로 더욱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운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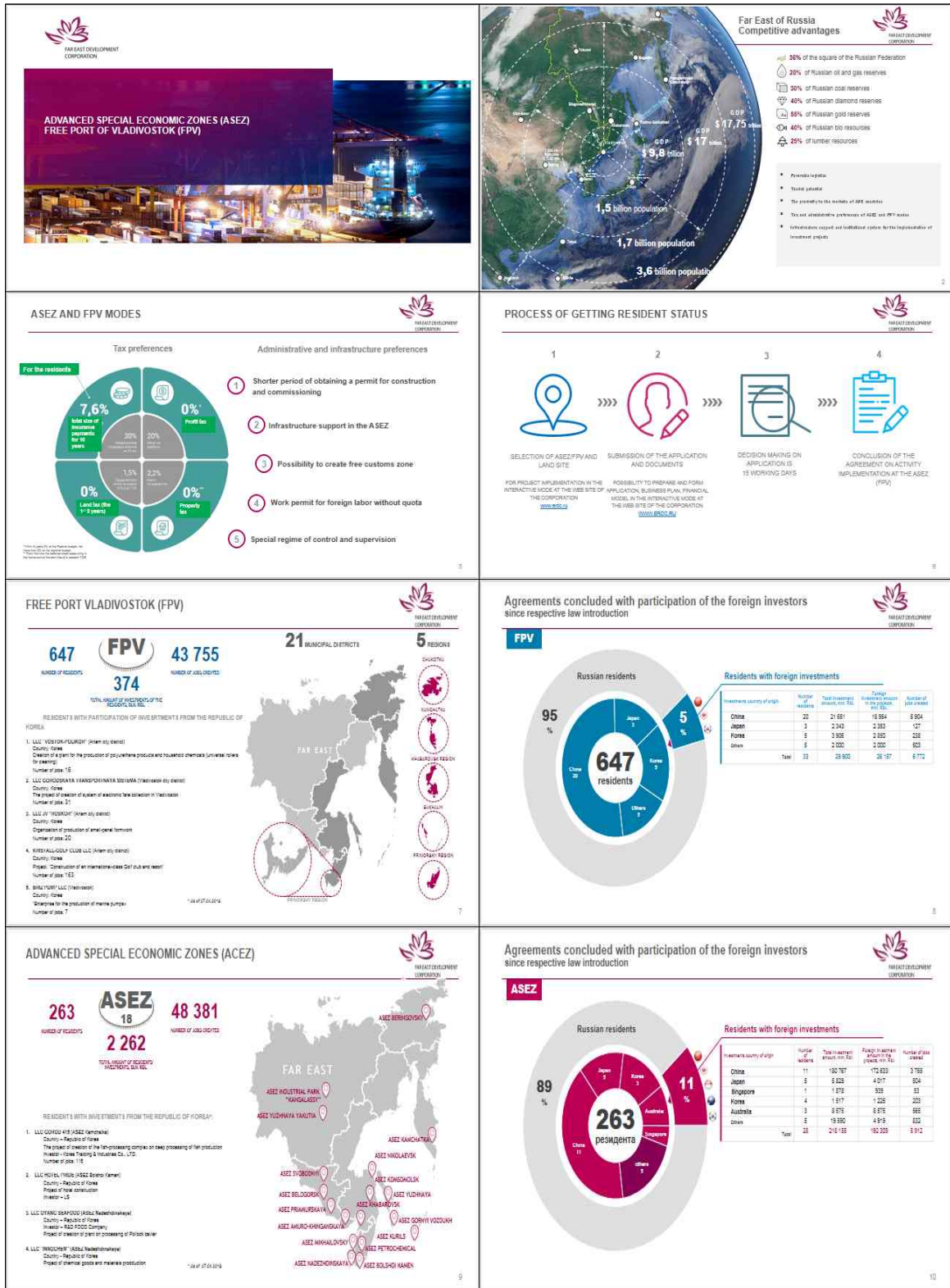
IV. 부록

▶ 2018 제8차 한-러 극동포럼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08:45~09:15		참가자 등록 및 네트워킹
개회식		한-러 극동지역 실질협력 : 새로운 기회와 도전
09:10~10:00	개회사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축사	타라센코 연해주지사
	축사	폴리크 연해주 의회 의장
	환영사	이석배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
09:25~09:30	기조연설	극동 투자 잠재력과 개발 방향 (무르치지 극동개발기금 선임국장)
		한-러 경제협력 비전과 추진전략 (김성진 북방경제협력위 협력총괄팀장)
09:30~10:00		사진 촬영
Session I		극동 개발 : 극동 개발의 새로운 전개와 대응 방안
10:00~11:30 좌장: 김동주 국토연구원 원장	주제 발표	1. TOR 및 FPV 해외투자 사례와 시사점(페추르치크, 극동개발공사 부사장) 2. 극동러 개발 전망과 과제(성원용, 인천대학교 교수) 3. 극동개발 추진성과와 향후계획(페진, 극동개발공사 사장) 4. 극동지역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한러 협력 방안(이현주,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	한: 안예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황진희 KMI 본부장 러: 스코릭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입주기업 지원협회 회장, 자오스트롭프스키 러 과학아카데미(RAS) 극동분원 선임연구원
Session II		수산업선진화 : 극동러 수산 현대화와 협력 방안
11:30~13:00 좌장: 레루힌 극동수산물거래소 사장	주제 발표	1. 극동지역 수산·양식 산업 투자 기회(자부즈나, 극동투자수출지원청 분석관) 2. 수산가공물류단지 중심의 한러 수산협력 과제(장홍석, 수산정책연구실장, KMI) 3. 연해주 양식장 투자 사례와 한러 협력 가능성(나스타프셰프, 연해주 수산국장) 4. 어선 건조수리 분야 한국의 참여 방안(김학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5. 극동지역 수산자원 거래 복합단지 조성(레루힌, 극동수산물거래소 사장)
	토론	한: 권기현 한국통산 부장, 성기석 CJ대한통운 부장, 엄선희 KMI 부연구위원 러: 갈리트순 캄차카 어업부 차관, 비사이트프 사우스터미널사 사장, 카피토노프 사할린 수산청 차장
13:00~14:00		오찬
Session III		북극항로·물류 : 북극항로와 복합운송의 균형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14:00~15:30 좌장: 양창호 KMI 원장	주제 발표	1. 북극항로 활성화 성과와 향후 과제(세르게이 오가이, 네벨스코이국립해양대 총장) 2. NSR 연계 비즈니스 모델(조지성, KMI 전문연구원) 3. 극동러 TSR활용 복합운송 활성화 현황과 계획(프루드니코프, 극동철도 수석엔지니어) 4. 극동러 복합운송에서의 화차 문제와 한러 간 협력방안(한창윤, 세원마르스 대표)
	토론	한: 전명수 블라디보스토크경제대학 객원교수 러: 바클라노프 태평양지리연구소 부문장, 라빈 아태연구센터 소장, 베네프스키 중국 칭화대(지구과학부) 교수
15:30~15:50		Coffee Break
Session IV		에너지 : 극동러 지역 한러 석유가스 협력 방안
15:50~17:20 좌장: 아브라모프 극동연방대 교수	주제 발표	1. 극동러 지역 LNG 공급분야 투자동향(예로힌, 언스트&영 극동대표) 2. 한국의 천연가스 수급전망과 한러협력 가능성(김효선, 북방경제협력위 위원) 3. 사할린 석유가스 프로젝트 동반자 DMNG(사비츠키, 극동해양원수시추社 수석 엔지니어)
	토론	한: 이상준 국민대 교수, 강태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러: 니콜라이 로프킨 가즈프롬극동유통사 사장, 이리나 팔레예바 사할린주 경제개발부 차관, 판테레예프 연해주 부주지사 에너지 자문관
17:20~17:30		마무리(이성우, KMI 본부장)

▶ 세션1 【극동개발】 극동개발의 새로운 전개와 대응 방안 발표자료

□ 주제발표 1. TOR 및 FPV 해외투자 사례와 시사점(페추르치크, 극동개발공사 부사장)



□ 주제발표 2. 극동러 개발 전망과 과제(성원용 인천대 교수)

Prospects for the RFE Development and Main Tasks: Korean Perspective Weon Yong Sung School of Northeast Asian Studies(SONA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Geopolitics Initiatives and Regional Cooperation
It's time to change! But, how to escape the reemergence of geopolitical competition	Realizing the “New Economic Map” Initiative and Economic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evolution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in NEA and Co-sharing of Strategic Interests	Rajin-Khasan Railway Project
NEA Supergrid: Possible Connections and KEPCO's Plan	Small Butterfly centered on the Korean peninsula

□ 주제발표 3. 극동개발 추진성과와 향후계획(페긴 극동개발공사 사장)



□ 주제발표 4. 극동지역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한·러 협력방안(이현주 국토연구원 센터장)

The 8th Korea-Russia Far East Forum

Korea-Russia Cooperation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an Industrial Complex in the Russian Far East

May 16, 2018.

Hyunju Lee, Ph.D



KRIH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1) The Russian Initiative for the Eurasian Economic Union

➢ Russia launched the Eurasian Economic Union(EAEU) in 2015 to promote its own lead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 Currently, the member countries are Russia, Kazakhstan, Belarus, Armenia and Kyrgyzstan.
- EAEU aims to facilitate the free movement of goods, services, capital and labor among member states and to secure joint policies in the economic sector.

<EAEU member countries>



<EAEU General Information>

Category	Information
Population	- Population as of Jan 2016: 182.7(mil) People: 2.5% of the World Population
Economic Indicators	- GDP: \$2.2(trn) in 2014(3.2% of the World GDP) - Volume of External Trade of the EAEU with third countries in 2014: USD 877.6(bn) (3.7% of the World Export)
Natural Resources	- Oil Production: 625.3(mil) Ton(14.5% of the global Production) - Gas Production: 687.6 (mil) Cu(19.3% of the global production)

Source: www.eurasianunion.org

3) South Korea's New Northern Policy

➢ President, Moon Jae-in has introduced 'New Northern Policy' in the third Eastern Economic Forum, which was held in Vladivostok, Russia in 2017.

- 9 BRIDGES Strategy: gas, railroad, port, electric power, Arctic route, shipbuilding, agriculture, fishing and jobs
- The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Committee was established as a presidential organization in 2017.

<Vision and Objectives of New Northern Policy>

To usher in the era of the northern economic community of peace and prosperity

Way Forward

- To enhance exchange and cooperation across three areas: including trade and investment
- To push ahead with cooperation projects across nine sectors (gas, railways, ports, power generation, Arctic Shipping Route, shipbuilding, agriculture, fisheries, and industrial complex) simultaneously

1) Opportunities: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Corridors

➢ Agreement between Russia and China on Development of the Primorye-I, Primorye-II

- Logistics and regional development in Far East Russia are to be expanded as the 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transport infrastructure in Primorye-I and Primorye-II is agreed between Russia and China.

<Concept map of Primorye-I and Primorye-II>



<Development of Primorye-I and Primorye-II>

	Primorye-I	Primorye-II
Route	Harbin-Mudanjiang-Suifenhe-Vladivostok-Nakhodka	Changchun-Jilin-Hunchun-Zarubino
Characteristics	- Handling of freight to western coast of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via Vladivostok	- Transportation between China and Russia and freight to Korea and Japan
Effects	- Up to 45 million tons of grain and container minerals are to be transported through both lines by 2030. - The two lines will increase GDP by 29 billion rubles and tax revenue by 5.7 billion rubles by 2030. (Russian Far East Development Department).	

Source: www.korea.com/2017/5/15

1) Opportunities: Industrial Belts in the Northern Area

Promising Industries



Prospects for the development Cross-border Industrial belt by Combined transportation Network



- Petro- and Gas-Chemistry : Feasible, need to induce foreign investment
- Shipbuilding & Aircraft manufacturing : Feasible, need to induce foreign investment
- Lumbering & Aquatic product processing : Promising, related to Chinese market demand
- Changchun-Yanji-Hunchun-Rason Industrial Belt
- Harbin-Mudanjiang-Suifenhe-Vladivostok Industrial Belt
- Shenyang-Qandong-Shimju Industrial Belt

1) Opportunities: Changes of North Korea

➢ 2018 Inter-Korean Summit(2018.4.27)

- Panmunjeon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North Korea-China Summit(March 25-28, 2018), North Korea-US summit scheduled soon.

Panmunjeon Declaration

1. South and North Korea will reconnect the blood relations of the people and bring forward the future of co-prosperity and unification led by Koreans by facilitating comprehensive and groundbreaking advancement in inter-Korean relations
2. South and North Korea will make joint efforts to alleviate the acute military tension and practically eliminate the danger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3. South and North Korea will actively cooperate to establish a permanent and solid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 Two leaders agreed, through regular meetings and direct telephone conversations

✓ President Moon Jae-in agreed to visit Pyongyang this fall

Inter-Korean Summit Photo



1) Opportunities: Changes of North Korea

➢ Moon Jae-In government's three Goals: on the Korean Peninsula

-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Establishment of Permanent Peace
- Development of sustainable Inter-Korean Relations
- Realization of a New Economic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Three Economic Belts

- Pan Korea Sea Economic Belt**: Belt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connecting Wonsan, Namhaeng, Daejeon, Rason, and Russia
- Pan East Sea Economic Belt**: Belt of transportation, logistics, and manufacturing connecting the Seoul metropolitan area, Gangneung and Haeju, Pyongyang and Nampo, Sinuiju, and China
- Pan Yellow Sea Economic Belt**: Belt of environment and tourism connecting the District of Ecological Peace, Security, and Tourism in the DMZ and the Utilization Special Economic Zone

Source: www.korea.net/Government/Current-Affairs/National-Affairs/affair4-656

3) Further Considerations

Clarify the Implementation system for Development of the Korea-Russia Industrial Complex

- Conclude an agreemen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s first.
- Review the Korea-Russia Far East Development Cooperation Council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Russia Industrial Complex and Far East Development Infrastructure.
- ✓ Determine specific agreements such as industrial development, operation and management support systems, etc.

Identify Various Financing Options

-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fund between Korea and Russia.
- Use public-private-partnership mechanism.
- Review cooperation with AIB and EXIM banks' consultative body (GTI) for the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industrial cooperation complex in the future.